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은행 정기예금 급증

□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정기예금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사운용사 수신은 감소함.

- 한국은행의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말 은행권 수신 잔액이 1,048조 1,000억 원으로 6월말과 비교해 3조 5,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부가가치 납부의 영향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4조 8,000억원 감소하고 양도성 정기예금(CD)도 4조원이 줄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상향조정으로 정기예금이 12조 4,000억원 증가하여 은행권 수신이 증가함.
- 머니마켓펀드(MMF)\*의 금리경쟁력 약화와 주식형펀드의 환매로 인하여 자산운용사 수신은 6월 9조 5,000억원 감소에 이어 7월에도 6조 5,000억원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짐.

\* 머니마켓펀드(Money Market Fund, MMF)는 공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 신탁의 일종임.

□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정기예금의 증가로 인하여 통화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이 지난달 반기말 일시상환분을 7월에 재취급하고 일부 외화대출이 원화대출로 전환되어 3조 2,000억원 증가했으며 6월의 1조 9,000억원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섬.
- 하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7월 가계대출이 1조 5,000억원 증가했으며 6월의 2조 5,000억원 증가와 비교해 증가폭은 둔화됨.
  -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대출금리 수준, 은행의 확대노력, 집단대출 증가, 주택금융공사 신규대출상품 출시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함.
- 은행의 정기예금이 증가하면서 통화량도 늘어 6월 광의통화(M2, 평잔)는 전년동월대비 9.7% 증가했고 금융기관 유동성(Lf, 평잔) 증가율은 9.3%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.

(2010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등, 한국은행 등, 8/11)